

‘오영환·설훈 의원 합류’ 새로운미래의 호소

“민주주의·민생 복원... 마지막 불씨 살려달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영환 의원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첫 선대위 회의를 진행했다. 새미래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복원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새미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선대위 회의를 진행했다. 오 위원장은 “새미래는 창당한 지 한달 보름 정도된 신생정당인데 그동안 이름은 ‘미래’인데 과거 얘기고 그리고 새롭지 않은 원망과 공격 언어를 주로 노출해왔던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 못한 점을 반성하고, 우리부터 태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미래는 더 이상 막말, 증오,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원망하고 비난하기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게 만드는 정치를 멈추고 희망을 드리는 언어로 교체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막말과 마타도어 등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국민께 사과드라고 과감한 후보 박탈 등의 조치를 약속한다”며 “우리부터 예의를 갖추고 생각이 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입당 환영식에서 설훈(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오영환 의원(사진 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막말 · 증오 · 배제의 언어 사용 안할 것... 있을 시 과감조치
양당 극한대립 넘어 정치복원 위해 반드시 제3당 필요해
저출생 · 기후재난 · 지방소멸 등 중대과제... 미래 앞세울 것”

른 국민을 존중하고 정중히 설득하면서 충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새미래가 추구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새미래는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미래, 세 가지 키워드

를 앞세울 것”이라며 “무너진 민주주의의 마지막 불씨를 다시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호소드리고 싶다. 중요하고 배척하기 바쁜 정치환경에서 거대양당 중 누가 이기든 앞으로 3~4년 동안 너무 뻘한 싸움의 장으

로 이어지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고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만하게 우리만 정당이라고 우기지도 않고, 억지 부리지도 않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유불리 관계, 기득권 등 모든 걸 내려놓고 가슴속 민주주의의 가치, 정의로운 믿음 하나 안고 어려운 길을 걸겠다는 선택을 했다”며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복원을 위해 반드시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저출생, 기후재난, 지방소멸.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3대 중대 과제”라며 “당면한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 등이 실종된 선거 상황이다. 청년과 미래먹거리, 대한 고민과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새미래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경제를 앞세우는 선거를 주도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씨앗을 심은 뒤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기까지 많은 햇빛과 양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새미래는 이런 농부의 자세로 결코 조급해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모든 진정성을 다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소

중한 씨앗을 기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대란, 물가 문제의 뿌리에는 정치가 있다. 이걸 그냥 놔두어서는 민생도 미래도 없다”며 “이 정치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다. 파란당, 빨간당 대결과 적대정치, 증오 속에서 우리 정치가 희망이 있을까라는 국민 불안과 불신, 절망에서 새미래가 싹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몇 명 나오냐, 또는 앞으로 새미래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이런 문제를 갖고 국민들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다”며 “본격 선거전을 맞아 새미래는 진영정치, 권력잡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정치를 하겠다”고 보탰다.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은 “사실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다. 국민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국가 미래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통합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며 “새미래가 그 가치와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전북의 아들들에게 반전을”

민주 박용진 의원, 강북을 재경선 시작 앞서 전북 찾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재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52)이 고향인 전북을 찾아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하는 지역당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열차편으로 전주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같이 (경선)투표에 참여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고 박용진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막힌 것이, 전주에 오는 시간 동안 왜 강북을 후보를 뽑아달라는 호소를 고향 전주에서 하느냐는 것이었고, ‘박용진 짝어내기’,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규칙’ 속 경선에 나서는 것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늘 주장해 온 원칙과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고향에서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선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박용진 답게’ 뒷걸음질치지 않겠다”면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견마지로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북의 아들 박용진이, 전북에 호소드라는 것은 2002년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의 물풍이 만든 멋진 대반전이 정권 재창출을 만들었듯이, 전북의 선택으로 민주당에 반전과 역동성이 있음을 보여달라”며 “박용진에 힘을 실어주셔서, 민주당의 반전과 역동성으로 수도권 민심과 중도표를 얻어내서, 윤석열 정권심판의 결정적 동력을, 바로 제 고향 전북에서 만들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막말 파문’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2인 경선을 진행기로 했다. 경선은 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의 온라인 투표(카카오톡)로 치러진다.

/뉴시스

“익산의 새로운 미래 모토, 지역발전 헌신”

새미래 '제1호 영입인재' 신재용, 익산갑 출마 선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의 제1호 영입인재인 신재용 후보가 국가대표 선수(29)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익산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신 출마예정자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비례대표 1차 명단 발표 이후,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한 사람의 결단이라도 절실한 지금의 우리 당을 위해 지역구에 몸을 던지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신 출마예정자는 “지금 현재, 광주에서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해 뛰고 계시는 이낙연 대표와 전주갑에 발 벗고 나선 신원식 예비후보를 비롯, 새로운미래의 많은 분들이 호남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며 자신의 고향 익산을 포함한 호남에서



그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참정권을 되살리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민주당의 정신을 살리고 새로운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선당 후사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삼보 국가대표로서 짊어졌던 책임감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학내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리더십이라는 자산을 있다는 신재용 출마예정자는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모토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며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미래는 어려운 길을 걷다가 이제야 바다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새로운미래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예비후보에 등록한 신재용 출마예정자는 원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유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 삼보 국가대표 선수, 국제삼보연맹 선수위원회 위원, 서울대 유도부 코치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예비후보(왼쪽)가 18일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 중앙문앞 현장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함께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사진=신원식 예비후보측 제공)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 유치”

새미래 신원식 예비후보, 제4호 공약 발표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앞 현장서 공개 제안
“전북, 삼성 기술혁신 투자 유치 여건 만들어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당 차원서도 적극 지원”

삼성중공업 이사, 전북도 정부부지사를 지냈던 새로운미래 신원식 예비후보(전주갑)가 4호 공약으로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 예비후보는 18일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 중앙문앞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혁신 산업단지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전북의 경제적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땀집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적 생태계를 생산적 패턴으로 바꿔 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전북자치도를 앞으로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

도적 특례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적용한 초대형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만금지역은 기술혁신 산업단지로 키워 삼성그룹으로부터 초대형 공장을 유치하고 배후도시로서 전주시를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시킬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에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생산과 기술 인력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삼성그룹 내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투자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며 투자 유치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항만, 철도, 공항 등 Triport(트라이포트)가 충족되고 있다. 십수년전 삼

성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투자를 철회할 때와는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제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과감히 삼성그룹의 기술혁신 초대형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세계 일류 삼성그룹에서 임원생활을 하면서 조선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던 경험과 일진그룹 근무 당시 충남 홍성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진출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의 공약발표 기자회견 현장에는 6선 출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새로운미래 고문)이 함께해 ‘새로운미래’ 당 차원에서도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의 투자유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원식 예비후보는 이날 3일자로 새로운미래의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로서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으로 임명된 바 있다.

/특별취재반

‘경선 패배’ 민주 김성주 의원 “당 총선 승리에 힘 보탬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향후 당의 총선 승리와 검찰총선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짧고 치열했던 경선이 끝났다. 전북의 변화를 위해 과거로의 회귀를 막아야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라며 경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후 “꺾임없이 기득권과 맞서왔지만 저 역시 어느덧 기득권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기득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교·대학 선배인 정동영 전 장관과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성주 의원은 “절망이 깊은 곳에서 희망은 항상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맑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며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고 검찰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19~23일 신고해야”

전북선관위 “서면·인터넷 등으로 신고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주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스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2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임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